

베네수엘라, 라틴아메리카적 원인과 결과

최명호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HK연구교수 (✉ nadadh@gmail.com)

주요내용

- ▶ 베네수엘라는 과거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제난으로 자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.
- ▶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, 차베스 가족의 바리나스 주지사 연임과 같은 국가 내 만연한 족벌체제를 들 수 있음.
- ▶ 혁명적 목표를 이뤄야한다는 상황과 반혁명세력이 호시탐탐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베스 주의를 지지하는, 더 정확히는 현 대통령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 중 부패의 몸통을 처리해야 했음.

1. 이슈 현황

▶ 베네수엘라는 과거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경제난으로 자국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음.

- 2008년 엘시스테마란 청소년 오케스트라 다큐멘터리와 더불어 소개된 베네수엘라는 21세기 사회주의라는 이름의 이면에 우리 시대의 유토피아라는 이미지가 있었음.
 - 이젠 고인이 된 차베스의 혁명 혹은 개혁은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병폐들을 치료할 것처럼 보였음.
- 하지만 현재 미디어에 노출된 베네수엘라의 이미지는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조건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임.
 - 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, 다시 말해 국가의 기본적 조건조차 해결하지 못하는, 국가라 부르기도 과분한 상황임.

❖ 2015년 9월 29일에 발표된 세계경제포럼(WEF)의 2015~2016 '글로벌 경쟁력 보고서(Global Competitiveness Report)'에서 베네수엘라는 30개 부문이 최하위인 140위를 기록했고, 전체 순위는 132위로 나타남.

□ 세계경제포럼의 평가는 각국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정성적 평가 비중이 높은 만큼 국가별 비교보다는 시기별로 한 나라의 지표나 순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임.

□ 베네수엘라의 경우 내수시장은 7점 만점에 4.5점이고 외수시장은 5.3점임.

- 수출은 국내총생산의 39.9%로 2013년 기준 23.70%에 비해 16.2%가 증가했으나 수출이 증가했다기보다는 국내총생산의 증가율이 감소한 탓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임.

□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'건강/초등교육' 부문과 '고등교육/직업교육' 부문임. 각각 5.5점과 4.5점을 받음.

- 93%의 교육대상자가 중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77.9%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음. 이는 140개 국가 중 15위에 해당함.

□ 그럼에도 교육의 질은 그리 높게 평가받지 못했으며, 직업교육 부문은 모두 100위 권 밖이었음.

- 차베스주의, 베네수엘라의 혁명이 현재까지 경제적으로는 그리 큰 성과를 낳지 못했다고 해도 건강/의료, 교육 등의 부분에서는 상당한 결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움.

- 하지만 현재 상황이 2015년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것 또한 사실임.

□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에 따르면, 베네수엘라는 2016년의 시작과 함께 실질 GDP 성장률이 -14%로 최하를 기록했고, 2018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봄.

- 소비자물가지수는 2017년에 550%로 최고치를 기록했고, 2018년에는 300%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.

- 하지만 계속되는 반정부 시위와 식량 및 약품 부족 사태의 추이로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음.

- 한편, IMF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이 720%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.

❖ 2017년 6월 22일 현재, 3개월 이상 반정부 시위가 지속되고 있고 사망자는 75명, 구속 수감자는 3,200명 이상임.

□ 22세의 시위자가 방위군의 고무총탄에 의해 사망했고, 19일에는 17세 소년이 시위 도중 경찰이 쏜 총탄에 사망했음.¹⁾

1) 심진용, 시위대 사살 '생중계'된 베네수엘라...무더기 구금·가혹행위에 아이들은 영양실조 (2017. 6. 26.)

- 체포와 구금이 이어지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음.
- 체포된 3,200명 중 1/3은 여전히 투옥된 상태라고 함.
- 마두로 대통령은 시민들의 시위를 ‘제국주의적 쿠데타’라고 표현했으며²⁾ 이는 대결국면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한 것임.

□ 카라카스는 시위로 인해 주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가 폐쇄되었음.

- 도시와 수도가 그 기능을 잃어버렸으며, 여전히 생필품과 약품은 부족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음.

□ 또한 현재 골드만삭스는 베네수엘라의 최대기업이자 국영석유회사인 PDVSA(Petróleos de Venezuela)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음.

- 이코노미스트에 의하면 총 30억불에 달하는 주식을 매입³⁾한 것으로 알려짐.
- 개헌과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의 주식 매도는 결국 정부와 여당 그리고 차베스주의 마저도 붕괴시킬 위험이 있음.

□ 베네수엘라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음.

- 2017년 5월 7일 자 연합신문 기사에선 “농지 국유화, 가격 및 통화 통제로 식량 생산, 유통 체계가 붕괴했기 때문이다”⁴⁾라고 보았음.
- 차베스 사후 2014년에 일어난 큰 폭의 유가 하락이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부로 등장한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의 석유 수출 기반 경제사회 운영의 폭을 상당히 낮추었으며, 복지와 재정 지출에 대한 압박은 물론 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찾아오게 했다는 의견도 있음.
- 야당으로 인한 정치 혼란의 결과이며, 사회 구조적 개혁의 실패라는 지적도 존재함.
- 그러나 앞에 소개한 3가지 설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음.
 - 베네수엘라가 그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라거나 경제적 저발전의 상황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임.
 -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상황은 국가 시스템 자체가 붕괴 돼버린, 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임.
 - 과연 무엇이 현재의 베네수엘라를 있게 한 원인인지 설명하기에는 위의 3가지 설명은 부족함.

2. 원인과 분석

➤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, 차베스 가족의 바리나스 주지사 연임과 같은 국가 내 만연한 족벌 체제를 들 수 있음.

2) 심진용, op.,cit.

3) 이코노미스트 6월 컨트리 리포트 ‘베네수엘라’

4) 현경숙, “ 굶주리는 베네수엘라...식량부족에 700% 넘는 살인적 인플레이”, (2017. 5. 7.)

- 지난 6월 7일(현지시간) 베네수엘라 국영전력회사 사장, 대통령 위원회 회장 등을 역임한 우고 차베스의 동생 아르헨니스 차베스(Argenis Chávez)가 차베스의 고향인 바리나스(Barinas) 주지사직을 승계함.⁵⁾
 - 2017년 1월까지 바리나스 주지사는 우고 차베스의 형인 아단 차베스(Adán Chávez)였음.
 - 아단 차베스는 쿠바대사, 교육부 장관 등 요직을 거쳤고,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쿠바에서 치료 중일 때는 대통령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기도 했음.
 - 주목할 것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바리나스 주의 주지사는 우고 차베스의 아버지 우고 데 로스 레이예스 차베스(Hugo de los Reyes Chávez)였다는 것임.
 - 그리고 2008년부터 2017년 1월까지 아단 차베스, 2017년 6월부터 아르헨니스 차베스가 맡게 됨.
 - 약 20년 동안 한 가족이 주지사를 연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복합을 떠올리게 함. 족벌체제(Nepotism) 혹은 정실 자본주의(Crony capitalism)라고 할 수 있음.
- 이런 족벌체제는 차베스 가문만이 아님. 현재 대통령인 마두로는 2005년에 국회의장이었음.
 - 마두로가 2006년 외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자 부인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국회의장직을 물려받게 됨.
 - 2012년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지만 마두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영부인으로서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임.
 - 혁명의 높은 이상과는 상관없이 권력은 몇 개의 가문 혹은 가족들이 독점하고 있었고, 족벌체제가 베네수엘라의 출세 비법이었을 것임.
 - 실제로 아르헨니스 차베스는 세 번이나 부정부패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베네수엘라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음.
 - 2017년 6월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법원은 차베스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음.

➤ **마두로 대통령은 2015년 총선에서 패배했으며 그 피해는 사회 하층민들에 돌아감.**

- 1998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18년 동안 20번의 선거가 있었고 19번을 차베스주의자들 혹은 베네수엘라 연합사회당(PSUV)이 승리했음.
 - 부패가 지속되면서, 연합사회당의 2015년 총선 패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임.
 - 그러나 이 패배의 피해는 족벌체제로 권력을 독식한 세력이 아니라 사회 하층민들에게 돌아감.
 - 이미 국민 5분의 4가 빈곤자에 속한다는 통계 결과⁶⁾가 있을 정도로 상황은 암담함.

□ 총선에 패배한 이후 마두로 대통령은 2015년 12월 15일 담화에서 “볼리바리안 혁명의 부흥을 철

5) 국기현, “차베스 동생 고향인 베네수엘라 바리나스 주지사직 승계”, (2017. 6. 8.)

6) 현경숙, op., cit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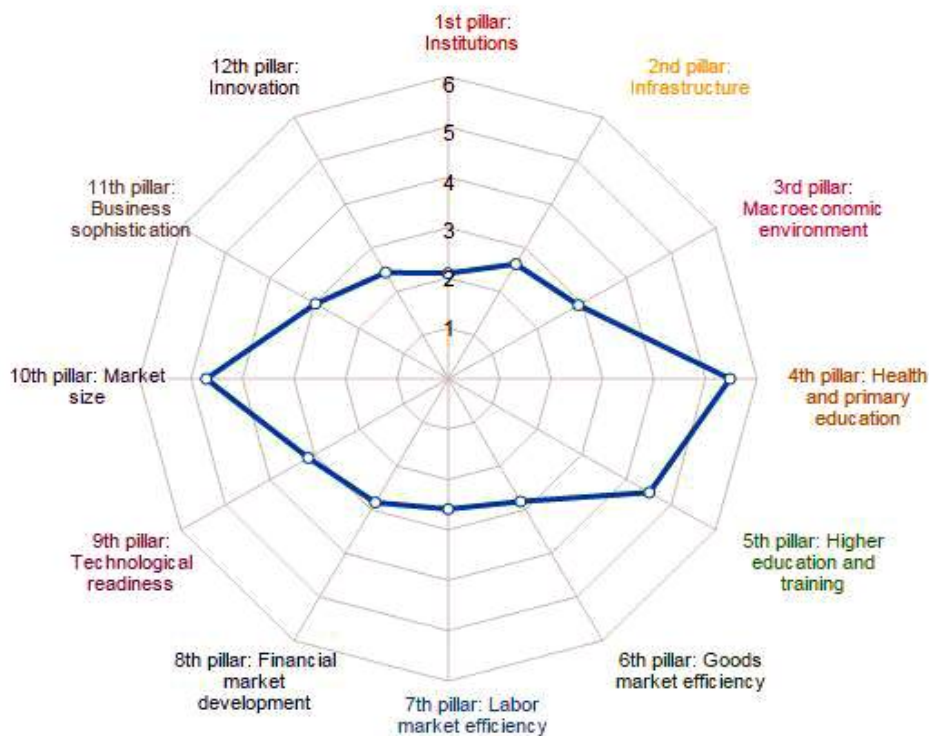
저히 준비”하겠다고 함. 그는 2016년 5월 16일 포고령을 통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음.

- 계엄과 비슷한 상황인 비상사태 선언은 2017년 6월 현재 시위와 강경 진압이 이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곡점이었음.

□ 2016년 5월 발표된 포고령에 의하면 군이 공공질서 유지와 식량 분배 및 판매 권한을 갖게 되며, 반정부 성향을 보이거나 사회 불안정을 야기한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계 기업이라도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었음.

-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포고령을 반포한 이유임.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 파시스트 세력의 요청을 받고 베네수엘라의 안정을 뒤흔들고 있다고 보아 60일간의 비상사태 포고령을 발표한 것임.
- 시위하는 대중들이 베네수엘라 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, 그렇다고 해서 베네수엘라의 파시스트라고 간주하기는 어려움.
- 또한 현재의 상황이 베네수엘라 파시스트의 요청을 받은 미국의 전술이라면 수십만의 시위대 또한 친미적 반정부 시위대일 뿐임. 이런 관점으로는 상황의 어떠한 해결도 혹은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움.

그림 1. 2015~2016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 중 부문별 베네수엘라 지표



자료원 : World Economic Forum, (검색일: 2017. 6. 27.)

7) 베네수엘라 여당 입장에서 친미주의자, 미 제국주의 추종자 정도의 의미임.

▶ 베네수엘라의 정치/경제적 위기를 말할 때 우선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원유가격의 하락임.

- 베네수엘라는 단일자원, 석유자원 의존경제국으로 원유가격 하락이 큰 타격을 줬을 것임.
 - 하지만 중동의 다른 석유자원 의존 국가들이 베네수엘라보다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은 설명하긴 어려움.
 - 또한, 원유의 경우 가격 변동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상품은 아니므로 국제 원유가격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경상수지에 반영된다고 보기도 어려움.
 - 그러므로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단지 원유가격의 폭락으로만 설명하기엔 한계가 있음.
- 비상사태를 선포하던 마두로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.
 - 미국은 베네수엘라 수출의 38%, 수입의 29%를 차지함.
 - 수출에서는 인도와 중국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둘을 합쳐도 미국의 비중엔 미치지 못하고 수입에서도 브라질과 중국의 비중이 높으나 역시 미국의 비중엔 미치지 못함.
 - 18년이 넘는 차베스주의 혹은 볼리바리안 혁명조차 단일자원 의존경제 구조만이 아니라 미국 의존적인 수출입구조 또한 바꾸지 못했음.
 - 정치적으로 라틴아메리카 반미의 기수였지만 경제적으로는 상호의존적이었던 것임.
-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부문은 GDP의 1/3, 수출의 80%를 차지하고, 정부 수입의 절반임. 하지만 원유수입의 60~70%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음.⁸⁾
 - 게다가 2016년부터 원유 정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경질유를 수입하고 있는 처지임.⁹⁾
 - 하지만, 라틴아메리카에 비슷한 경제구조/무역구조를 보이는 국가가 적지 않으므로 베네수엘라의 경제/무역구조가 취약하긴 하지만 현재의 처참한 상황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움.

▶ 베네수엘라 정부는 불황을 막기 위해 환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은 3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됨.

- 베네수엘라는 앞에서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원유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하는 구조의 국가임.
 - 다시 말해서 교역은 베네수엘라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.
 - 그리고 안정적인 환율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, 베네수엘라 정부의 개입으로 악용되어 공식 환율로 달러를 구매해 비공식환율로 암시장에 팔게 되면 30배의 이익을 얻게 됨.

8) 정인환, 종신 집권 문 열어젖힌 차베스, (2009. 2. 26.)

9) 김선한, 원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, 美 석유 수입, (2012. 7. 10.)

- 공식 환전소에 거액을 움직일 수 있는 고위 공무원과 수입업체에게 이것은 어떤 사업보다 이익률이 높은 사업임. 이러한 이유로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고 자국 내에서 달러가 돌면서 30배 혹은 그 이상의 이윤을 올리는 것임.
 - 이런 거래가 계속되면 자국 화폐량이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.
 - 베네수엘라에서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는 국립대외무역센터(Cencoex)인데, 문제는 여기서 용도에 따라 다양한 환율을 적용했다는 것임.
 - 생필품-약품 등을 수입할 때는 최저 환율인 6.3볼리바르를 적용받았고 여행 목적일 때는 12볼리바르로 인상되었고 목적지와 기간에 따라 환전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있었음.
 - 자유환전시스템의 환율은 170볼리바르였고 암시장에서는 190볼리바르 혹은 그 이상으로 거래되었음.
 - 바로 여기에 현재 베네수엘라 비극의 원인이 존재함.
- 실제로 국립대외무역센터의 전신인 베네수엘라 외환통제위원회(Cadivi)는 부정한 방법으로 외환을 지급하는 부패의 핵심이었음.
 - 조사결과에 의하면 베네수엘라 외환통제위원회의 총보유 달러 중 1/3이 유령회사로 흘러들어갔으며¹⁰⁾ 당시 중앙은행 총재였던 에드미 베탕쿠르(Edmee Betancourt)는 그 금액이 매년 200억 달러, 베네수엘라 국내총생산(GDP)의 4%에 달한다고 밝힘.¹¹⁾
 - 초기에는 수입업체들이 경비를 과다 계산하여 청구하는 방식으로 시작하여 유령회사를 만들어 오직 달러만 베네수엘라 내부에 유통시켰음.
- 그러나 문제는 단지 외환 관련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님.
 - 원유 수입대금을 달러로 들여온 경우 공식 환율로 계산하고 실제로 암시장에서 달러를 교환하게 되면 장부상으로 공식 환율로 계산된 원금은 그대로이지만 상당한 차액을 챙길 수 있음.
 - 더 중요한 것은 환치기 부정은 실제 거래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달러가 볼리바르로 환전되면서 30배 이상 볼리바르의 화폐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것이 몇 년 만 반복되더라도 볼리바르 가치 폭락, 생필품과 약품의 부족(가장 낮은 환율로 환전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)은 예상할 수 있음.
 - 바로 현재 베네수엘라의 상황의 원인 중 하나인 것임.
 - 이런 부정부패의 문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대책은 미온적이었음.

10) Andrew Cawthorne, Patricia Velez, 'Venezuela says 40 percent of dollar buyers are shell companies', <Reuters>, 2013년 12월 12일

11) Aporeea 특별팀, Presidenta del BCV: Parte de los \$59.000 millones entregados en 2012 fueron a "empresas de maletín",

DOLARVEF, Empresas de maletín han robado US\$300.000 millones,

2012년 기준 베네수엘라 국내 총생산은 약 381억 불이며 외환보유고는 298억 불이었음. 이 불법 외환거래에 들어간 총액이 590억 불이니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음. 2016년 현재, 불법 외환거래에 사용된 총 달러가 3,000억 불이라는 주장도 있음. 이 코노미스트에 의하면 2016년 베네수엘라의 국내 총생산은 566억 불 규모임. 국내총생산의 5.3배가 환치기에 들어간 것임.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500%-700%로 집계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음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**혁명적 목표를 이뤄야한다는 상황과 반혁명세력을 감안하더라도 차베스주의를 지지하는, 아니 더 정확히는 현 대통령 마두로를 지지하는 세력 중 부패의 주요 원인들을 처리해야 했음.**

- 영화 아포칼립토에 등장하는 말처럼¹²⁾ 위대한 혁명은 외부적 요인으로 좌초되지 않았음. 굉장히 라틴아메리카적인 이유, 부정부패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 것임.
 - 만일 차베스가 라틴아메리카 최후의 까우디요(Caudillo)라면 바로 이런 관점, 권력을 족벌화했다는 점, 그로 인한 부정부패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점에서 이해할 만함.
 - 물론 강력한 보수 세력의 저항과 계속되는 암살 위협 등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려움.
 - 하지만 아무리 위대한 이상도 민주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비난을 피할 수 없음.
 - 우리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. 하지만 형식과 내용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 방편적으로 나눈 것이지 내용과 형식은 원래 하나임. 혁명이건 개혁이건 그 형식은 당연히 민주적이어야 할 것임.
- 이 상황을 타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와 여당이 선택한 것은 개헌임. 1999년 제정된 헌법 개정을 발표한 이후 정부와 여당은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헌법개헌을 추진 중임.
 - 아직 총선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된 것은 아니나 국회의 반 이상을 정부가 임명하거나 비정부기구에 배당한다는 것은 입법 기능을 행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1972년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유신헌법을 연상케 함.
 - 또한, 여당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를 할지도 의문임.
 - 현재 반정부 시위가 계속된다면 개헌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할 것임. 또한, 개헌의 움직임으로 시위가 과열 될 가능성도 높음. **EMERiCs**

12) 영화에 등장하는 말은 “위대한 문명은 외부에 의해 정복되지 않았다.” 임.

참고문헌

- 심진용, 시위대 사살 '생중계'된 베네수엘라...무더기 구금·가혹행위에 아이들은 영양실조, (2017. 6. 26.)
http://news.khan.co.kr/kh_news/khan_art_view.html?artid=201706260801001&code=970201#csidxf654e7af29d359b3a71a4f99edf761
- 이코노미스트 6월 컨트리 리포트 '베네수엘라'
- 현경숙, " 굶주리는 베네수엘라...식량부족에 700% 넘는 살인적 인플레이션 ", (2017. 5. 7.)
<http://m.news.naver.com/shareRankingRead.nhn?oid=001&aid=0009247021&sid1=001&rc=N>
- 국기현, "차베스 동생 고향인 베네수엘라 바리나스 주지사직 승계",
<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06/08/0200000000AKR20170608003500087.HTML>
-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, 나는 여기에 연설하러 오지 않았다, 송병선역, 민음사, 2016, p28.
- World Economic Forum, (검색일: 2017. 6. 27.)
- 정인환, 종신집권 문 열어젖힌 차베스, (2009. 2. 26.) http://h21.hani.co.kr/arti/world/world_general/24423.html
- 김선한, 원유 매장량 1위' 베네수엘라, 美석유 수입 (2012. 7. 10.)
<http://www.yonhapnews.co.kr/international/2012/07/10/0607000000AKR20120710046600009.HTML>
- Andrew Cawthorne, Patricia Velez, 'Venezuela says 40 percent of dollar buyers are shell companies',
(Reuters), (2013. 12. 12.), <http://www.reuters.com/article/us-venezuela-economy-idUSBRE9BB0T820131212>
- Aporrea 특별팀, Presidenta del BCV: Parte de los \$59.000 millones entregados en 2012 fueron a "empresas de maletín", <https://www.aporrea.org/actualidad/n229466.html>
- DOLARVEF, Empresas de maletín han robado US\$300.000 millones,
<http://dolarvenezuela.com/empresas-de-maletin-han-robado-us300-000-millones/>

💡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